

2020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0. 11. 20. (금) 10:00~11:00
2. 장소 : 행정관 중회의실
3. 참석자(총 13명 중 9명 참석)
 - 가. 교원대표 : 주창윤(의장), 성혜경, 조정환, 이도희
 - 나. 직원대표 : 이계원, 김홍석
 - 다. 학생대표 : 신은진
 - 라. 동 문 : 최형심, 박희옥
 - 마. 외 부 : -
4. 불참자 : 송미경(교원), 신동인(학생), 장유식(부의장), 손인웅(외부)
5. 심의 안건
 - 가.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 나. 대학원 학칙 개정(안)
 - 다. 직제 개편(안)
6. 기타 안건
 - 가. 총장추천위원회 교수위원 추천

1. 심의 안건 -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경영기획팀장이 상위법 준용 및 용어와 문장의 정비 등을 반영한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위원들이 승인하다.

2. 심의 안건 - 「대학원 학칙」 개정(안)

경영기획팀장이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위원들이 승인하다.

3. 심의 안건 - 직제 개편(안)

경영기획팀장이 기획처 산하에 성과환류데이터센터를 신설하는 직제 개편(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센터가 신설되면 성과환류 관리에 관한 기본 체제를 기반으로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환류 체제를 관리할 예정인가?
 - 성과환류데이터센터는 각 학과별 성과환류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 기존 각 행정부서별, 각 학과별 성과환류에 대한 결과를 수합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다. 개별 부서 및 학과의 성과환류에 대한 관리는 향후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각 행정부서 및 각 학과가 담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는 각 조직별 성과환류 관리의 결과가 학교의 정책 방향 또는 결정으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전체 결과를 수합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학교의 정책 결정으로 연결시키고자 한다.
- 조직의 명칭에 사용된 ‘데이터’, ‘센터’라는 용어가 기획처 산하의 다른 부서 명칭과 상이하다. 또한, ‘데이터’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조직의 신설 취지인 교육 전반에 대한 성과 분석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관리의 측면이 강조될 수 있어 조직 명칭으로 인하여 성과환류 역할이 축소되어 보이는 등 조직의 명칭에 따른 역할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교내의 다른 센터 조직과의 성격과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명칭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성과환류데이터센터가 신설되어 담당하게 될 업무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업무는 현재 전략평가팀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다. 단, 전략평가팀은 행정을 실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합하여 성과를 관리하는 전담조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대학기관평가인증 등 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반 행정부서의 명칭과 차별화되는 ‘센터’라는 용어를 선택하게 되었다. 현재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학교 전반의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데이터통합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과제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우선 1단계로서 기획처 산하에 성과환류에 초점을 맞춘 조직을 신설하고, 2단계로서 차년도에 데이터통합센터의 성격이 강화되면 조직의 소속 및 담당 업무 등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신설되는 조직의 명칭은 추후 평가에 대비하여 성과환류를 관리하는 역할과 데이터통합관리의 역할을 포함하는 것으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란다.
- 성과환류데이터센터 신설에 따른 직제 개편(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4. 기타 안건 - 총장추천위원회 교수위원 추천

경영기획팀장이 학교법인 정의학원의 서울여자대학교 제9대 총장 선출 방안에 따라 대학평의회에서 총장추천위원회의 교수위원 2인을 추천해야 함을 설명하고, 이어서 대학평의회 의장이 제9대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선출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 주창윤 의장이 교수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중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수위원 2인에 민병걸 교수와 엄성용 교수를 추천하다.
- 대학평의회에서 2인의 총장추천위원회 교수위원을 추천하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 교수가 아닌 다른 구성원은 교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교수위원의 추천에 어려움이 있다. 단, 현재 학교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차기 총장은 전체 구성원이 동의하는 자가 되어야 이러한 시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총장 선출 제도로 인하여 교내 구성원이 지지하는 후보가 총장이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까 염려스럽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내 구성원의 단결된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직원 평의원은 교수 평의원이 추천한 2인의 교수위원을 총장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것에 동의한다.
- 제9대 총장 선출 방안은 교수에 대한 정보나 인식이 부족한 평의원이 총장추천위원회 교수위원을 추천해야 하는 불합리함의 문제가 있다. 이번에 법원에서 정한 총장 선출 방안과 관련하여 교수, 직원, 학생 등 교내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이러한 총장 선출 제도는 반드시 재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향후 총장 선출 방안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구성원의 총장 선출 방안과 관련한 절차나 방법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상세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 현재 총장 후보 5명 모두가 총장 선출 제도 개선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는 실현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이다.
-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총장추천위원회 교수위원 2인은 교수회의에서 합의된 대로만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아니다. 교수 평의원의 경우에만 해당 교수 2인을 지지하도록 합의된 것이고, 다른 평의원은 다른 교수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제9대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선출 방안 중 대학평의회에서 총장추천위원회 교수위원 2인을 추천하도록 정한 취지가 학내 모든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었으나, 학생의 경우에는 교수위원이 어떠한 의견으로 투표를 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대학평의원

회에서 총장추천위원회 교수위원 2인을 추천하는 것으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총장 선출 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바이다. 단, 학생 평의원의 입장에서 총장으로 선출된 자가 다음 5가지 요구안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총장과의 정기 협의체 구성, 둘째, 2020학년도 하반기 등록금 재책정 및 2021학년도 등록금 인하, 셋째, 전임교원 확충, 넷째, 학생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구조를 위한 총장 직선제 도입, 다섯째, 정의로운 서울여대를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총장이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학생 평의원은 교수 평의원이 추천한 2인의 교수위원을 총장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것에 따를 수 밖에 없다.

- 동문 역시 교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총장추천위원회 교수위원 추천에 있어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교수 평의원이 추천한 2인의 교수위원을 총장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것에 동의한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 총장추천위원회 교수위원 2인으로 시각디자인전공 민병걸 교수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엄성용교수를 추천하는 것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5. 회의록 공개 범위 논의

- 의장이 2020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6. 차기 회의 일정

- 직제 개편(안)의 심의를 위해 12월 초~ 중순 경에 차기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의장이 11시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0년 11월 20일

의 장	주 창 윤	(서명) 주창윤
평 의 원	성 혜 경	(서명) 성혜경
평 의 원	조 정 환	(서명) 조정환
평 의 원	이 도 희	(서명) 이도희
평 의 원	이 계 원	(서명) 이계원
평 의 원	김 홍 석	(서명) 김홍석
평 의 원	신 은 진	(서명) 신은진
평 의 원	최 형 심	(서명) 최형심
평 의 원	박 희 옥	(서명) 박희옥
간 사	하 성 호	(서명) 하성호